

2017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 일시 | 2017. 12. 8.(금) 13:30

| 주최 |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청의 말씀

한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올 한해를 설계하는 설렘이 큰 12월에, 여러분을 ‘제2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 초대합니다. 『보건사회연구』는 1981년 ‘인구보건논집’으로 창간된 이후 36년 역사의 학술지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 보건, 사회분야 이론과 정책을 아우르는 귀중한 논문들을 게재하였고, 수많은 정책 제안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2016년에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콜로키움은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적 연구정신을 촉발하기 위하여 4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논문들의 소재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치매노인을 위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치매 국가책임제의 적절한 구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계의 구체적인 기여가 요구되는 주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주제가 보건의료, 복지,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건사회연구』의 지향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2016년 콜로키움이 학술적 측면에서의 도약을 지향하였다면 2017년 콜로키움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의 시너지 효과 창출 또한 『보건사회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될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이 이론과 정책을 선도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항상 저희 『보건사회연구』에 귀중한 논문을 투고, 심사해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 콜로키움에 오셔서 탁월한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7년 12월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정 경 희 배상

프로그램 일정

13:30~14:00	등록	
14:00~14:20	축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개회사	정경희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14:20~14:50	기조 발표	“대한민국 치매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김기웅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앙치매센터장)
14:50~16:30	본 발표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 체계 진단과 과제”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호학적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제언” 홍귀령 (한양대 간호학과 교수)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전망과 예방 전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30~17:30	지정 토론	좌 장 : 정경희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장) 조은희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
17:30~18:00	종합토론 폐회	

오시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지하철 이용시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버스 이용시 서울신문사 하차 :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광화문빌딩 하차 :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 문의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정보팀 (044-287-8177, editor@kihasa.re.kr)